

# 미세먼지 잡고 쾌적한 녹색도시 만든다

###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노력 가시화... 수치, 작년 이맘때보다 평균 30% 줄어

익산시(시장 정현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펼치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2017년 1월 익산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68 $\mu\text{g}/\text{m}^3$ 이었던데 반해, 2018년 1월에는 측정수치가 49 $\mu\text{g}/\text{m}^3$ 로 약 27%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역시 47 $\mu\text{g}/\text{m}^3$ 에서 32 $\mu\text{g}/\text{m}^3$ 로 32%가량 줄어 들었다.

**▲ 오해와 진실, 익산시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

익산시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크게 국외적 요인과 익산시민의 지리적 요인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에 위치하여 주변국의 영향을 받는데, 중국 미세먼지의 영향이 67~70%를 차지한다.

한편, 익산시는 평야지형으로 일교차가 큰 내륙성 기후인데다, 하천이 없어 열섬 및 기온역전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인접지역인 충남에는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밀집되어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인 6천 메가와트의 열기 발전소가 당진에

위치해 편서풍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팔봉동 측정소는 주거지역에 위치한 타 도시의 측정소와 달리 공업지역에 위치해 있다.

팔봉동 측정소는 익산 제2산업단 경계선 및 차량 통행량이 많은 IC방향 쪽 도로변에 설치되어, 익산소각장이 직선거리 약 1Km 인접해 있다.

또 지리적으로 타 지역 측정소에 비해 습도가 높고 풍속은 낮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될 수밖에 없다.

**▲ 미세먼지 주변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익산시는 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미세먼지 저감에 주력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 면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북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약 50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35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

련 지원 사업(250대) 등 상반기에만 총 4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고농도기인 3~6월, 11~12월 중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에 도로변 미세먼지 부유억제를 위한 살수차 및 노면흡입 청소차량 6대를 집중 운행하고, 천연가스 시너버스 확대보급(21대)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200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입지원(70대)을 통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 생활주변 미세먼지, 꼼꼼히 막아내**

연재부대가 날씨뉴스 말미에 미세먼지 예보가 항상 따라오고, 참문 한번 여는데도 미세먼지 농도부터 확인하는 일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외출 시 마스크를 챙기는 것이 익숙한 일상이 되었고, 검정색 마스크는 아예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았다. 반갑지 않은 손님, 미세먼지는 이처럼 사나브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다.

아예 익산시는 '공기일터미'를 인구 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10개소에

설치하여,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체육시설 운동장 캐노피 물체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여 시민들 스스로 외부활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412개소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과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도, 시군 합동교차 점검 실시 및 중점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2021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08억원을 투자해 가로수 식재, 시민의 숲 조성, 명상 숲 조성 등 100만주의 나무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해 우리시는 미세먼지 고농도지역이라는 억울한 오명을 벗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제 그 결과가 서서히 가시화 되고 있다"고 말하며, "올해 완료되는 미세먼지 성분분석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시민의 맞춤형 미세먼지 개선책을 추진해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기자

## 이미영 대표 전북도교육감 출마 선언 "군산 해양수산고 설립하겠다"



이미영 전북 지역교육연구소 대표가 21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을 방문, 8·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제18대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투자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처럼 군산공과 폐쇄 결정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 군산시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장기적으로 군산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군산 해양수산고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산은 인근 김제, 부안, 고창과 더불어 천혜의 자원이 바다를 접하고 있으나 해양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 소득으로 연계시킬 교육적 비전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양강국의 미래를 담당할 인재양성의 요람 해양수산고는 소프트웨어적인 방식(기존 특성화고 변경, 과목 신설, 고교학점제, 온라인 강의)으로 개설해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장 주민참여 선출제' 실시와 '지역 중심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교육은 말 그대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라며 "사랑과 열정이 없으면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교육 행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교육인이 책임지는 '바람직한 학교'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군산=김판곤기자

## "지역경제 발전 위한 축제 내실화 최선"

### 군산시, 축제위원회 개최... 축제 개최 결과 보고·향후 개선 방안 토의

군산시는 21일 2018년도 제1차 군산시축제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7년도 축제(행사) 개최에 따른 결과 보고와 함께 향후 개선 방안을 토의했다.

이날 축제위원회는 9개 부서 담당 과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행사가 종료된 축제 및 행사에 대한 결과 청취 후 축제 개선 방안 토의와 함께 위원들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토의대상은 군산시로부터 3,000만원 이상 지원받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군산시노사가요제, 군산시민의날 행사, 평생학습한마당, 와글와글 전통시장가요제, 희망복지 박람회, 진포예술제,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및 썸머 페스티벌, 군산시간여행축제, 서천군산 금강철새여행, 군산평당보리축제로 총 10개 축제 및 행사이다.

위원회에서는 올해 축제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의 경기활체를 극복하고 군산시민의 자기 진작 및 군산관광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게 적극적인 노력



군산시는 21일 2018년도 제1차 군산시축제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7년도 축제 개최에 따른 결과 보고와 함께 향후 개선 방안을 토의했다.

를 당부했으며, 이밖에 소모성, 회식 행사를 지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축제 효과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서에서 찾도록 주문했다.

장경의 복지관광국장은 각 부서 과

장들에게 "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요즘, 올해 진행될 축제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축제 내실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판곤기자

## 군산시,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위한 전문교육 실시

군산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1일 관공소 및 읍면동 공유재산 담당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유재산 업무담당자들이 새물행정시스템(공유재산)운영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박영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검색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대부사용허가 ▲무단점유 및 변상금 관리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 및 자료 정정 ▲새물행정시스템과 e-호조시스템 연계방식 등으로 실무와 직결되는 공유재산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진성봉 회계과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행정의 생산성 및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면 보다 더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군산=김판곤기자

## 정현을 익산시장, 싱그린FS 방문 현장행정 펼쳐

정현을 익산시장은 21일 용안면 내 국내 최대 닭고기 해외수출 전문업체인 (주)싱그린FS를 방문해 기업에 대한 청취하고 해결을 위한 현장행정을 펼쳤다.

이번 현장행정은 국내 대규모 산토끼 가공업체인 (주)싱그린FS에 해외수출 위생조건(HACCP)에 충족하는 작업장 위생 시설 개선 현장을 둘러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을 듣고자 진행됐다.

국내 세계 시장규모는 연간 3천만수 내외로 이중 45% 정도를 싱그린에서 수출과 내수 물량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시장은 44% 정도를 점유할 정도로 싱그린이 압도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날 정 시장은 (주)싱그린FS 이주세 대표를 만나 2017년 고병원성 A형살균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도 도계 품질을 향상해 HACCP인증 등 품질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여 지속적인 수출성장을 이룩한 성과를 격려했다.

또한 생산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을 만나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노고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익산=정양원기자

## 군산시립도서관, 내달부터 상반기 야간문화강좌 운영

군산시립도서관에서는 3월부터 6월까지 운영될 2018년 상반기 야간문화강좌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야간문화강좌는 화요일이나 생일 등으로 주간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된다.

이번 야간문화강좌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미술산타를 통하여 자신의 심리를 탐색하는 미술산타상당과 연필 기초 드로잉에서 어반 스케치까지 배우보는 '나만의 힐링 스케치' 2강좌를 운영해 총 38명을 모집하며, 초등학교 1~4

학년を対象으로 놀이를 통해 중국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나는 놀이 중국어 강좌'를 운영해 15명을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3월 5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454-5645)로 신청하면 되고, 수강료는 30,000원(교재비 및 재료비 별도)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gnsn.g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립도서관 자료운영계(☎454-564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